

# 세계화 시대의 고등교육 품질 보증과 대학평가의 국제 동향

이영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지원부장

## I. 고등교육 품질 보증에 대한 국제적 관심

21세기 초입의 사회변화의 주요 트렌드(trends)는 무엇인가? 예컨대, 세계화·개방화·경쟁의 다극화·지식기반 경제의 심화 등이 주요 화두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세계가 하나의 단일시장이 된 세계화의 진전은 개별 국가의 문을 다른 나라에 열어 주지 않을 수 없는 개방화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개방화 추세는 글로벌 경쟁력 심화로 귀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는 오늘날 초국적 기업들이 보다 '좋은 조건'과 '기회'를 찾아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주요 이유이다. 초국적 기업의 주요 이동경로는 바로 우수한 인력이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과 노동 투입형의 산업사회가 지식기반 경제사회로 질적 변화가 날로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매우 강조되기 때문에 초국적 기업은 우수한 인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세계화·개방화·지식기반 경제의 심화 등의 사회변화는 전통적인 대학의 사명과 기능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의 질적 발전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중요시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대학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관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 이유는 단순 명쾌하다. 대학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문화 번식을 위한 '학문탐구'와 창의적이고 지도자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본질적 사명으로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학이 이러한 본질적 사명과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느냐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현실적으로 입학자원 부족의 시대에 개별 대학차원에서도 그 존립을 위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초국적 기업과 인력의 국제적 이동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어 고등교육 인구 이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교육이동세기'에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저마다 제공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품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날로 고조되고 있다.

예컨대, Bologna process Bergen 회의(2005. 5. 9-20)에서 EU국가 교육부장관들이 채택한 ENQA 보고서 『유럽 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 2005)』과 같은 해 12월 OECD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UNESCO/OECD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지침(UNESCO/OECD Guidelines on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 2005)』은 고등교육 품질 보증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해가 집약된 국제적 규범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고등교육의 질 관리 및 품질보증은 대학·국가·국제사회의 공동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셈이다. 특히, 그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은 국내외의 고등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백해질 전망이다. 고등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학의 내부 자체평가를 통하여 질 관리 노력을 해야 하고, 그 품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외부의 제3자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이다.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 시킨다는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먼저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과 『OECD/UNESCO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학 자체평가와 외부 제3자 외부 평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에 따른 주요국가의 대학평가체제 정비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비추어 나름대로 우리나라 대학평가 체제 정비의 과제를 결론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ENQA 대학 자체평가 및 외부 제3자 평가의 지침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에서는 대학교육 공급자인 양질의 대학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대학 자체평가의 내부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대학들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과 학위수여 기준을 정해야 하고, 그 품질 보장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강구하고 있는지, 대학들은 자체노력을 통하여 질 관리의 중요성과 질 보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문화적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품질 보장을 위한 정책과 절차가 공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내부점검 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에서는 이상의 대학 자체평가의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학위수여, 학생평가, 교수진의 질, 학습자원과 학생 지원체제, 학습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주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어떤 고등교육기관을 막론하고 공식화 되어 있는 학위수여 규정 및 관리체제가 타당하며, 객관적인지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여 공개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셋째, 유능하고 자격이 있는 교수진이 확보되어 있으며, 교수의 질 제고를 위한 적절한 교수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넷째, 학생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학습자원을 적당하고 적절하게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 다섯째, 학습 프로그램의 질은 우수하며, 학습 활동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수집이 되고 있는지, 그 정보가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야 한다. 여섯째, 고등교육기관들이 저마다 제공하는 학습 프로그램 및 학위수여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집계·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에서는 외부 제3자 평가기구의 품질 보증 활동의 효율성, 활동 범위, 자원, 사명, 독립성, 외적 질 보증의 준거와 과정, 절차적 책무성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외부 품질 보증 평가활동의 효율성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당해 국가의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야 하고, 그 법이 정하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ENQA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셋째, 공식화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품질 보증 평가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외부 품질 보증 평가에 필요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들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외부 질 보장 과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다섯째, 외부 품질 보증 평가활동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여섯째, 피 평가 고등교육

기관, 정부, 그리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일괄제, 품질 보증을 위한 과정과 절차 그리고 준거 기준은 사전에 만들어져야 하고 공표되어야 한다. 여덟째,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 제3자 평가기구에 대한 지침에서는 ①품질 보증을 위한 평가방법 및 절차적 사항으로 자체평가와 연계성이 있는 외부 제3자 품질 보증 평가 주요 항목의 선정, ②전문가 집단에 의한 외부 평가와 현지 방문에 의한 확인, ③외부 제3자 평가위원의 검토의견·권고사항·기타 공식적 견해를 포함하는 보고서 출판, ④동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관련 후속 조치 등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 Bologna process Bergen 회의에서 채택된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은 2007년 London 회의에서 재확인되었다. 2009년 Bologna process 완성년도를 앞두고 있는 EU국가들은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에 입각하여 전통적으로 평가를 해 오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평가체제를 재정비하는가 하면, 2000년대에 평가를 도입한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에 따라 평가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외부 제3자 평가인정기구를 ENQA에 등록하는 등 국가 간 평가기구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다.

### Ⅲ. 『UNESCO/OECD 교육서비스 공급자 및 평가기구에 대한 지침

『OECD/UNESCO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이하 ‘OECD/UNESCO 지침’이라 칭함)』은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 3차례 국제회의를 통해 6개의 고등교육 질 보증관련 기구 및 단체로 정부, 고등교육기관, 학생단체, 질 보장과 인증평가기구, 학위·자격인정기관 및

전문단체 등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하여 2005년 9월에 개최된 제33차 UNESCO 총회에서 확정하였고, 2005년 10월에 개최된 OECD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개최된 OECD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하에서는 고등교육 실질적 공급자인 고등교육기관과 외부 품질 보증 평가인정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OECD/UNESCO 지침』에서는 교육서비스 공급자인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의 품질 보증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국내와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질적 수준에서 차이가 없어야 하며, 교육수입국의 문화적·언어적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 모든 고등교육기관과 서비스공급자들은 UNESCO가 제안한 고등교육 교원의 지위에 관한 제안 등을 고려하여 좋은 업무환경과 근로조건, 동료주의적 의사결정구조와 학문의 자유를 제공해야 한다.
3. 현재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질 관리 체제를 점검해서 대학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여하는 학위가 국내·외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4. 우수한 질 보장 및 평가인증기구에 자문을 구하고, 원격교육 등을 통해서 고등교육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수입국의 질 보장 및 평가인증 체계를 존중한다.
5. 국내·외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6.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상호 자격인증 과정을 활성화한다.
7. 교육서비스의 제공방식과 자격인증 기준 및 절차를 가능하면 UNESCO와 유럽위원회의 권고에 따른다.
8. 프로그램과 학위에 대해 충분히 기술하고, 가능하면 학생이 획득하게 될 지식, 이해 및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고등교육기관 또는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질 보장 및 평가인증 기구 및 학생 단체와 협력하여 이러한 정보를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9.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상태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OECD/UNESCO 지침』에서는 질 보증 및 평가인정기구가 고등교육의 품질 보증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평가기준과 절차는 투명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 체제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국경 없는 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가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기존의 지역 및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에 지역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 이를 만들도록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정보나 우수 사례의 교환, 지식 전파, 국제동향 및 도전 과제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추진 담당자와 평가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부적절한 교육서비스 제공자나 평가기구들을 알리거나 이러한 기구들을 모니터링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3. 교육 수출국과 수입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대국의 질 보증 및 평가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연계를 확립한다. 이러한 연계활동을 통하여 교육 수출국의 질 보증 및 평가인증 시스템을 존중하고, 해외에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활성화 한다.
4. 평가기준 및 절차, 질 보증 기제가 학생,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평가결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질 보증 및 평가인정기구들은 고등교육기관, 교직원, 학생단체, 학문분야 인증기구 등과 이러한 정보의 전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5. UNESCO와 유럽위원회에서 발간하는 행동강령에

관한 원칙들을 적용한다.

6.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고 내부 질 보증 시스템을 개발하며 정기적으로 외부평가를 한다. 국제평가를 시범적으로 운용한다.
7. 해외 전문가로 동료평가 패널 구성 및 평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국제적 벤치마킹 절차를 수립하고, 평가활동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가 프로젝트를 운용한다.

이상의 교육서비스 공급자인 고등교육기관과 질 보증 및 평가인정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볼 때, 『OECD/UNESCO 지침』은 고등교육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전 세계의 국가 간 고등교육 질 관리 지침마련에 대한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 간 고등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는 동시에 그 질이 보장되지 않는 대학졸업장으로부터 학생들과 그 관련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등교육 품질 보증에 대한 국제규범인 셈이다. 이러한 『OECD/UNESCO 지침』은 앞에서 살펴 본 『유럽지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의 대학자체평가와 외부 제3자 평가기구의 행동강령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OECD/UNESCO 지침』은 각 국가의 질 관리 체제 기반을 국제적 관점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OECD/UNESCO 지침』은 현실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고등교육 체제와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교육의 질 관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UNESCO 지침』의 채택은 오늘날 국제적 기준을 가진 상호인정과 국제적 기준에 의한 고등교육 질 관리에 대한 세계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최근 태국,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대만,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평가체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OECD/UNESCO 지침』에 크게 자극을 받은 영향으로 볼 수 있다.

## IV. 대학평가제도 정비 과제

EU국가의 'Bologna process' 추진과정에서 채택된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 『OECD/UNESCO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 채택을 계기로 많은 국가들이 고등교육 품질 보증을 위한 기제로 대학평가체제를 정비하거나, 심지어 새롭게 도입하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출범한 우리나라 새 정부도 앞에서 살펴 본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공급자인 대학의 자율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내부 평가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의 고등교육 품질 보증을 위한 대학평가 체제 재정비의 과제를 결론삼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70여 개국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질 관리와 품질 보증의 수단으로 비록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대학평가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일이다.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글로벌 대학 경쟁력을 지닌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우리를 추월한 중국 역시 대학평가를 기제로 하는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장 원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에서 대학평가에 대한 준비의 부담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거나, 학회가 중심이 되어 해당 학문분야 평가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평가를 파행으로 물고 가는 것은 대학 경쟁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커다란 손실을 입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적으로 자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이 요청된다.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과 『OECD/UNESCO 지침』의 국제적 보급을 계기로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은 국제적 추세이다. 굳이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여도 대학이 스스로 강점과 개선점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대학교육 서비스 제공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경쟁력 있는 대학, 특성화된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은 대학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에 맞는 방향설정을 위한 자기점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셋째, 대학평가의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대학마다 처한 상황과 관심, 그리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평가의 획일성에 대한 비판이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의 고등교육의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대학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학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의 평가대안을 찾는 일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도입되는 정보공시제를 대학평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학의 설립목적, 규모, 지역별 소재지, 미래비전 등의 특성을 타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 평가판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평가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넷째, 최근 늘어나는 민간평가기구가 본래의 목적에 맞는 평가를 타당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동료 교수들이 논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수차례의 대학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대교협 대학평가는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별다른 평가 경험도 없는 민간평가기구에 대한 검증 절차도 없이 평가를 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과 『OECD/UNESCO 지침』의 외부 제3자 평가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침은 큰 틀에서 민간평가기구에 대한 검증의 기본 골격을 설정하는데 유효할 것이다. 이에 민간 평가기구 지정을 법제화 한 미국 연방정부(USDE)의 민간평가기구의 지정관련 법규와 일본의 문부성이 평가기구를 지정하는 학교법의 관련 내용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대학의 자체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보다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제3자 인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대학자체평가와 외부 제3자 인정평가를 막론하고 평가의 질은 평가위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대학자체평가관련 평가 전문 인력 확보는 대학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의 전제조건이다. 대학 내부 자체평가의 시행에서는 해당 대학별 평가편람 및 기준을 개발해야 하고, 평가절차 수립 등의 전문적인 평가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평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교육 구조 및 요소 분석 기법, 대학평가의 이론과 실제 탐색, 자율적 대학교육 질 향상 모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외부 제3자 평가인정을 담당할 평가위원 교육의 내실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대학을 지식기반 경제사회가 요구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을 주도할 인재 양성의 산실로 생각하는 경향은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지식기반 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품질 향상은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는 곧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은 공교육의 대중화를 뒷받침 했던 20세기 개발시대 발전교육론의 논리보다 더욱 견고하다. 따라서 세계가 하나의 단일 시장이 되어버린 세계화 시대의 고등교육 품질 보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그러하거니와 개별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대학평가 준비에 대한 부담이나 평가결과 발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학평가를 기피하거나 동종 학문 분야 현실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 등은 교수 자신은 물론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 소속 대학과 국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착오라는 것을 끝으로 강조하고 싶다.

### 참 · 고 · 문 · 헌

- 이병식(2005).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이영호(2007). "ENQA 유럽지역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의 의미와 전망". 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17(1), 125-144.
- ENQA(2005).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Helsinki : Multiprint.
- UNESCO/OECD(2005). UNESCO/OECD Guidelines on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UNESCO : Paris.

### 필 · 자 · 소 · 개

#### 이영호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통제와 상대적 자율성」에 대한 논문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영남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좋은교육연구회, 정책자문위원, 대학평가학회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지원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현대사회와 교육(공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등이 있고, 주요 연구로는 "ENQA 유럽지역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의 의미와 전망", "대학의 규모, 특성, 소재지역 등을 반영한 고등교육기관 평가방법, 기준 및 절차 개발에 관한 연구(공동 연구)" 등 다수가 있다.